



개인의 목표 위에 팀의 목표가 있음을 기억하라 박성화 감독

Q: 박 감독님,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A: 예, 반갑습니다.

Q: 감독님 현역 시절에 이영무 선수나 최종덕 선수 같은 분들과 같이 뛰지 않았습니까? 그때 경기 많이 보았습니다.

A: 예, 같이 뛰었죠. 친구고, 한 해 선배고 그렇습니다.

Q: 감독님은 대표팀 선수로 오랜 현역 생활을 하셨습니다. 현역 시절에 감독님의 점프는 다들 알아줬죠? 선수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하나 소개해주세요.

A: 제 기억에 뚜렷이 남는 두 경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 결승전으로, 최초의 남북대결이었습니다. 결승에서 북한하고 붙다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었어요. 이를 전부부터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할 만큼 긴장하고 시합을 치렀는데, 공동 우승을 했어요. 둘째는, 제가 센터포드로 뛴 한일전이었어요. 대표선수를 10여 년 하는 동안 저는 원래 수비수였어요. 그 당시 대표팀에서 김재한 선배가 은퇴를 하고 차범근 선배가 독일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팀의 스트라이커에 큰 구멍이 생겼었어요. 그때는 아직 최순호 같은 선수들이 대표선수가 되기 전이었어요. 그 공백을 매울 선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점프력이 좋다고 센터포드로 완전히 자리를 이동해서 시합을 치렀는데, 공교롭

게도 그 시합이 그 당시에 가장 비중이 컸던 한일전이었던 거예요. 많은 팬들이나 축구 전문가들까지도 성공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수비수가 스트라이커로 나가면 되겠냐?'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상태에서 나갔는데, 그날 공격수 데뷔전에서 헤트트릭을 했어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날도 연고전에서도 또 다시 헤트트릭을 했어요.

Q: 그때 연고전도 열기가 대단했죠?

A: 예, 그렇습니다.

Q: 이제는 감독으로 지휘봉을 잡고 계신데, 선수로서의 입장과 지도자로서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A: 네, 굉장히 다르죠. 우선 지도자는 선수들을 관리하며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집니다. 선수를 발굴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축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선수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Q: (청소년)대표팀의 팀 컬러는 무엇입니까?

A: 경기를 전쟁에 비교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가 그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길 수 있



새처럼 솟구치는 서전트 점프의 일인자, 국가대표 부동의 수비수로 발군의 활약을 보였던 박성화. 이제는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다. 금년 11월에 청소년 월드컵인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 본선에 진출한 박성화 호는 어디까지 갈까? 무엇을 보여줄까? 코엘류 호의 수석 코치를 겸하고 있는 그의 행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소의 큰형님 같은 수더분한 얼굴의 박 감독은 일단 그라운드에 들어서면 '자기가 가진 전부를 경기에 쏟아부으라'고 주문하는 호랑이 조련사로 돌변하곤 한다. 특히 연습할 때도 워밍업인지 실전적 훈련인지 분명한 선을 긋고 탈선을 용납하지 않는다. '팀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를 원한다'는 것은 감독들의 공통된 바람이겠지만, 그를 거친다면 기본은 확실히 배우고 나울듯한 근성의 축구인, 박성화 감독을 만났다.

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동국 선수의 탈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왜 이동국 선수가 탈락했는가? 코엘류 감독만이 그를 탈락시킨 게 아니고 과거에 히딩크 감독도 탈락을 시켰습니다. 지도자들이 그 선수를 봤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상을 자꾸 받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경기에 다 쏟아 붓지 못하면 결국 그 경기에서 지는 것이거든요. 대표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시합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경기장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선수를 요구합니다. 팀도 그런 쪽으로, 팀 전술도 그런 쪽으로, 훈련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Q: 감독님은 수비수 출신이어서 수비위주의 재미없는 축구를 한다는 팬들의 비판도 있습니다. 팬들은 골을 많이 넣는 공격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A: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공격은 창의적이고 수비는 조직적입니다. 팀을 구성하고 전술을 펼쳐나가는 데는 첫째가 조직입니다. 경기를 펼쳐나갈 때에 조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비수 출신 감독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수비수 출신이니까 저런 공격을 펼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왜 저렇게 하는지는 생각을 못 합니다. 수비 조직을 강조하면

그것을 수비축구로 아는데, 그게 잘못 전달된 부분입니다. 외국의 선진 축구를 돌아보면 수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수비는 잘못하면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됩니다. 공격은 실패를 자주해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은 열 번을 시도해서 한 골 넣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수비는 아홉 번 잘 막아내도 한 번 실수하면 영(0)입니다.

저는 사실 수비의 조직적인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워야 되고 거기에 준해서 공격적인 전술을 이어가는 식으로 합니다. 수비를 강조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많이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죠. 조직력을 가지고 시합을 나가는데 공수에서 항상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기는 관중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흥미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중들은 항상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칫 거기에 흔들리면 자기 축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수비만을 강조하는 그런 축구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 '4-4-2' 다, '3-5-2' 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수비에 대하여하는 말입니다. 프랑스가 1998년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도 우승의 비결은 철저한 수비였어요. 그 공격수들은 우리 공격수들보다 훨씬 수비 가담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모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인데도 철저히 수비에 가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 전달되어서 '재미없는 축구를 한다. 기술 축구를 해야 한다.'는 식의 의견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지요. 승부니까. 그것은 그 팀의 전략입니다. '수비 축구다. 공격 축구다.' 하는 것은 팬들 입장에서는 하기 좋은 말이지요. 그 팀을 구성하고 이끌고 경기에 나갈 때는 철저한 자기만의 전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수비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올바르게 발전하고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한다면 세계 축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개인적인 판단이나 막연한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대표팀 선수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반 팬들이 잘 모르는 기준은 없는지요?

A: 선수를 선발하는 첫째 기준은 기술, 즉 뛰어난 기량입니다. 대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기술, 체력, 정신력입니다. 기술을 가진 선수를 기본적으로 보되, 그 선수의 투쟁력을 봅니다. 승부근성을 말합니다. '과연 상대와 붙었을 때 정말 희생적으로 책임감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자기만의 플레이를 하고 끝나는 선수인가?' 선수들을 테스트할 때도 그랬고, 재선발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전후반 90분을 땀 흘릴 수 있는 체력을 봅니다. 기술이 뛰어나도 체력이나 근성이 없으면 그 기술을 써먹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좀 떨어지는 선수가 선발되기도 합니다. 팀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Q: 선수들에게 단점을 지적할 때에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A: 우리나라 선수들은 마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상하 관계가 뚜렷하죠. 코치나 대 선배가 말을 하면 아무리 잘못된 전달이라도 "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선수들의 단점을 지적했을 때도 그렇지요.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청소년 대표팀을 맡으면서 그들을 통해 많이 배우기도 하죠. 선수들보다 한 살 위인 제 딸을 보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려면 제가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선수 생활 했을 때와 지금의 선수들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 우리 때처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야 자기의 잘못을 고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 가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강압적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자유를 주면 쉽게 무너져버립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못해요. 안 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워밍업을 하면 코치의 지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군대식으로 항상 긴장감을 갖고 하지요. "오늘은 각자 알아서 해"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외국 선수들과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태도가 좋지 않으면 벌을 주든지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똑같은 훈련이라도 목적에 따라 강하게 주어질 때가 있고 워밍업 상태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런 것을 알아서 분간해야지, 그렇지 못할 때는 제가 엄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장 안에서는 강하게 하지만, 밖에서는 유하게도 합니다. 물론 지킬 것은 분명히 하고요. 아직까지는 다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Q: 세계청소년축구대회가 이라크 전쟁으로 11월로 연기되었는데, 한국은 강팀들과 한 조가 되었습니다. 4강을 목표로 준비하신다는데요?

A: 예선에서 탈락한다는 목표는 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16강을 갈 수 있다면 4강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선수들에게 목표의식이 뚜렷해야지, 16강만 가자고 한 후에 16강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의 목표가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4강은 실제로 무리한 목표지요. 우리가 체력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직력을 강화해서 나가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Q: 감독님은 축구 외길 인생이신데,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제 개인적인 성격에 의해서 좌우되었다고 봅니다. 스포츠는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10년씩도 안 부르게 됩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괴롭지요. 선발에서 탈락이 된다는지, 부상이 온다는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온갖 생각으로 갈등이 일어나지요. 그래도 목표를 잃지 않고 꾸준히 가는 사람만이 성공을 한다고 봐요. 제 주위에도 선천적

으로 타고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에 적응을 잘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감독이 바뀌는 일들이 있는데, 감독하고 대립해서 게임을 안 하는 선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선수를 용납을 못해요. 물론 감독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훌륭한 선수는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잘 따라와서 적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독과 똑같이 가야 합니다. 특히 축구를 하는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의 목표 위에 팀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가야 합니다.

Q: 감독님은 선수 생활 중에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A: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체력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장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대학교 때 양쪽 무릎연골이 파열되어서 대표선수 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은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참고 운동을 계속했어요. 무릎 수술을 세 번이나 받았습니다.

Q: 그런 줄은 잘 몰랐습니다. 대부분 팬들의 기억에는 감독님의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만 기억합니다.



A: 제가 성격이 좀 고지식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Push-up을 100번 하라고 하면 어쨌거나 100번을 채우고 그랬으니까요. 성격 자체가 뒤에서 탄 것 하는 그런 성격이 못 되서 팬들에게 그렇게 비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1979년도에 결혼을 했고 1980년도에 간염과 무릎연골 부상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인 26세의 한창 전성기 때였는데, 병원에서는 은퇴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신앙의 힘이 상당히 도움이 됐지요. 은퇴를 하라고 하니 용납이 되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Q: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축구 인프라를 위해 팬들이나 관계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A: 우리 축구가 발전을 하려면 유능한 지도자의 확보와 그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수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온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부분적입니다. 그동안 외국에 많이 나갔고 이제는 결실이 나올 때도 되었는데 브라질에 다녀온 선수들을 지켜봐도 좋은 대형 선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호 선수 등 몇몇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육성되어야 하고, 또 그들이 선수를 발굴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을 엄두도 못 냈던 일인데, 지금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문을 닫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면 외국에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선수들을 지도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감독이 모

르는 것이 있어도 “나는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항상 최고로 인정을 받아야 권위가 서니까. 또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다 아는 것같이 이야기를 하지요. 실제로 저는 벤치에 앉아 있을 때나 선수를 지도할 때에 순간순간 변화하는 축구의 시스템에 따라 다양한 훈련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쉽 없이 가서 보고 확인해요. 심지어 축구 해설하시는 분들도 축구 지도자보다 훨씬 전문가가 된 거예요. 말로서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세계축구의 흐름을 잘 모르고 전달을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듣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축구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의 것만 듣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진 축구의 흐름을 정확하게 빨리 파악을 해야 해요.

이건 집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집을 일단 사면 이상하게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돈이 값아지는데, 돈에 맞춰서 집을 사려고 하면 자꾸 집값이 올라가서 사기 어렵지요.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고 승부 근성이나 프로 근성이 약한 우리나라가 선진축구의 흐름을 단 번에 잡으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시스템에 적응력도 떨어지고. 그래도 저는 그런 것을 거쳐야 발전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축구를 일단은 빨리 과감하게 받아들여 적응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지도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빨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모르면 선수들도 잘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선진축구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그것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됩니다.

국제화 시대에 요즘은 생각이 많이 깨어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청소년 팀이 괜찮은 실력이었는데, 브라질에게 10골을 먹고 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박이천 감독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시스템 적응의 부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도 감독도 잘못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준비한 시스템이 상대팀과 맞았을 때 그 상대팀의 시스템의 변화에 우리 팀의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다 10골을 먹고 지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안 돼.” 하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결국 그 말은 “나는 몰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 됐을 때 안 된다고 해라. 왜 안 된다고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세계 4강까지 간 팀이 왜 안 됩니까? 일본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안 돼!”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것을 다 받아들여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한 단계 발전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식을 하고 나가면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Q: 한국 축구가 월드컵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제가 청소년 대표팀을 데리고 해외 원정을 가보면 스카우터들이 연습게임을 보러 옵니다. 과거에는 보러 오지 않았거든요. 세계 4강이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한국팀이 오면 시험을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월드컵으로 인해서 위상은 확실히 올라갔지요. 문제는 뭐냐면 봄이나 인기가 금방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현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중심리가 있어서 항상 우상이 바뀌어요. 가수들에게 갔다가, 농구 선수에게 갔다가, 배구 선수에게 갔다가, 축구선수에게 갑니다. 고정 팬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떠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봄이 조성이 돼서 일어났을 때는 “와! 이제 됐다.”는 생각을 가지지, 대비를 하지 않더라고요.

Q: 요즘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감독님께서 인생의 선배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A: 축구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어린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의지력이 약한 면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과거처럼 배가 고파서 입단하는 선수는 드물다고 봅니다. 저희나 선배들은 외국에 나가서 한국 교포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곤 했습니다. 태극기만 쳐다봐도 생겨나는 사명감, 대표선수로서의 보람, 그런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항상

간직하고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하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었지만, 대표선수가 되는 것도 고시시험 못지않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확률적으로 봐도 그렇지요. 그래서 선수들이 거기에 가기까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생활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의지력은 굉장히 약합니다. 눈만 열면 잔디밭이 있는데도 대비 훈련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는 과거에 무식하게 운동했거든요. 잠도 적게 자고 맨땅에서 축구했거든요. 그때는 대표선수라고 해도 잔디밭이 없어서 그때그때 잠깐씩 빌려서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환경은 좋아졌지만, 사명감이나 책임감은 희석되었음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개인주

의적인 것이 강합니다. '자기' 라는 것이 강해요. 머리로 과거에는 "머리 깎아라. 물들이지 마라." 하지 그냥 놔둬니까? 이제는 말하는 자체가 "영감님 웃긴다!"고 할 일인데, 그걸 보면 우스워요.

요즘 축구계도 상당히 과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선수들 스스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하며 이끌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하려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변화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과거와 같이 해도 안 되고 외국의 것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히딩크 감독이 그런 면에서 선수 관리를 잘했어요. 그 분은 선수심리에 관한 것이나 문화적인 면도 철저히 이해를 했고, 심지어 기자관리까지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하 위계질서가 너무 뚜렷해서 상하의 벽을 허문다고 나름대로 선후배 간의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철저하게 이용을 잘 하는 거죠. 사람을 잘 이끌고 나갔어요. 외국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 선수들의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유럽의 선수들에게는 감독이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감독이 맘에 안 들면 집에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끝나고 나면 모여서 의논하는데, 외국인들이 '뭘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항상 모여서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고치려고 한다." 했더니, 놀라는 거죠. 유럽은 완전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한데, 팀을 생각하거나 사명감을 갖지 않아요. 히딩크 감독은 외국 선수에게 없는 그 복종하는 자세나 사명감을 갖는 자세에다가 자율적인 면이나 상하의 벽 없이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 여간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과도기라고 봅니다.



Q: IYF세계대회가 해마다 열리는데, 전 세계 40개국에서 2천명 가량이 참석하여 한 달간(6월 30일-7월 26일) 한국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그 중에 명사초청 시간이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께서 인생의 경험담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박 감독님께서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한 시간 강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A: 앞으로의 스케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이야기만 해도 된다면 가능해도, 다른 이야기는 할 줄 몰라요.

Q: 선수들 중에 "저 선수는 이런 점만 고친다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선수가 있다면 어떻게 다스리니까?

A: 똑 같은 훈련인데도 한 선수에게는 '왜 열심히 안 하냐고 야단을 하고, 또 다른 선수에게는 '야 살살해라'고 해요. 이 경우는 뭐냐면 유형이 다른 경우입니다. 앞의 선수는 100%를 시키면 항상 보면 80% 하고 슬슬 걸어가는데, 그 선수는 시합할 때도 그렇게 해요. 뒤의 선수는 100%를 시키면 몸 상태가 안 좋은데도 120%를 해요. 예를 들어서, 10바퀴를 돌라고 하면 첫 바퀴 땀 때에 보면 5m 처지는데, 10바퀴 돼서도 그만큼 처져 있느냐? 아닙니다. 맘만 먹으면 1등도 할 수 있는데, 첫 바퀴 땀 때부터 10 바퀴 땀 때까지 거기서 안 벗어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 게 성격에서 오는 것인데, 그걸 못 고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이 선수들에게는 제일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가 제일 힘들어요.

Q: 감독님은 고려대, 국가대표 선수(10여 년간), 포항스틸러스 감독, 국가대표 수석코치, 청소년 국가대표 감독 등 축구인으로서의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다고 봅니다. 축구 팬들의 뇌리에 남을 만큼 빛을 보았지요. 그런데 음지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키워내려는 계획은 없는지요?

A: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요. 사실 제가 축구인으로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축

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축구팀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직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자기 꿈이 덜 실현된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을 육성한다는 것이 제게는 거짓말이라 생각해요. 저보고도 어린 축구팀에 이름을 걸고 하라는데, 저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박성화 축구교실은 없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프로팀 감독을 하기 원합니다. 아직 나이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도 올라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린이를 육성한다는 것이 맞지 않아요. 설사 해도 이용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유소년 지도자들 경우에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1987년에 프랑스에 갔었는데, 프랑스가 굉장히 유소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유소년 대표팀 하신 분이 "유소년 축구팀을 이끄는 지도자가 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먹고살기 위해서 이용한다든지, 대학팀에서 감독으로 오라 할 때에 그 아이들을 버리고 가 버린다면 아이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차범근 축구교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관리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더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영자가 프로팀 감독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대리인이 가서 하게 되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이름만 걸고 하면 올바른 축구 교실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현직 감독을 하는 그 기간에는 클럽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으로 하는 축구교실은 안 합니다. 신중히 잘 해야 할 부분입니다.

Q: 예, 오늘 고맙습니다. 대표팀 훈련이 차질 없기를 바라며,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독님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A: 감사합니다.(송민규 @ IYF체육부 기자) IYF